

※ 바로잡습니다 ※

- 한국광물학회지 제32권 3호 p.163-172 논문(제목: 남극 로스해 대륙대 플라이스토세 코어 퇴적물의 점토광물학적 특성 및 기원지 연구, 저자: 정재우, 박영규, 이기환, 홍종용, 이재일, 유규철, 이민경, 김진욱) 중 p.171 사사의 [과제명: 서남극 빙붕 변화 관측 시스템 구축 및 제 4기 해빙사(deglaciation history) 복원 기술 개발]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.

과제명: 퇴적물을 활용한 지난 2백만년간의 남극 빙권 및 해양 변화 복원(PE19030)

- 한국광물학회지 제32권 3호 p. 173-184 논문(제목: 벨링스하우젠 해의 동쪽 대륙붕과 대륙대의 코어의 점토광물을 이용한 기원지 연구, 저자: 박영규, 정재우, 이기환, 이민경, 김성한, 유규철, 이재일, 김진욱) 중 p.183 사사의 [과제명: 서남극 빙붕 변화 관측 시스템 구축 및 제 4기 해빙사(deglaciation history) 복원 기술 개발]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.

과제명: 퇴적물을 활용한 지난 2백만년간의 남극 빙권 및 해양 변화 복원(PE19030)